

권 두 언

안녕하십니까?

지난 2년간 분과위원회의 운영위원장을 맡았던 최광무입니다.

능력도 없는 제가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어려움도 많았으나, 운영위원님들과 회원님들의 도움으로 대과 없이 일을 마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능력이 많으신 유재우 교수님께서 새로운 위원장의 일을 맡으시게 되어 우리 연구회가 더욱 알차고 활기차게 발전할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난 2년간을 돌이켜 보면 좀 더 열심히 하였으면 하는 후회와 아쉬움이 크지만, 회원님들과 운영위원님들의 협조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회원들 간의 학문적인 교류가 활발해지고, 운영위원님들 간의 활발한 E-mail 교환 등 우리 프로그래밍언어 분과위원회가 활동적인 분과위원회로 발전할 수 있는 조그마한 기틀은 마련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 초기에 약속드렸던 국제회의의 개최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몇몇 교수님 개인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아서 조만간 분과위원회 차원의 국제교류도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저는 평회원으로 돌아가서 프로그래밍언어연구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조그마한 힘을 보태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도와주신 회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프로그래밍언어 분과연구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999년 12월

프로그래밍언어 분과위원회 위원장 최광무